



## 기술과 아메리칸드림

미국에서 일군 벤처기업을 팔아 단번에 7천2백억원을 손에 쥔 재미교포 김중훈(金鍾勳)씨의 얘기를 듣고 '과연 미국은 기술대국이고 기술자 천국이구나' 라고 감탄을 하게됐다. 그러나 모든 기술자가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니다. 대단한 재능과 많은 피와 땀을 쏟은 사람만이 아메리칸드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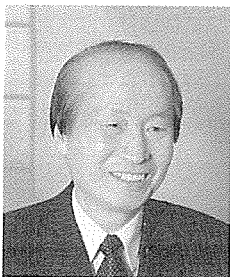
**지** 난 4월 말께에 미국서 벤처기업을 팔아 단번에 약 7천2백억원을 손에 넣음으로써 아메리칸드림을 실현시킨 김중훈(金鍾勳)이라는 재미교포에 대해 국내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여 화제를 던져준 일이 있었다.

거금 10억달러로 유리시스템을 인수했다 한다. 결국 유리시스템 주식의 56%를 소유하고 있는 김씨(회장)의 몫으로 5억1천만달러(7천2백여억원)가 계상됐다. 그리고 김씨는 계속 회장으로서 경영을 지휘해나가기로 돼있다는 것이다. 더 알고 싶은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도 '과연 미국은 기술대국이고 기술자 천국이구나' 라고 감탄하는 마음을 누르기가 힘들었다.

### 초대 대통령은 발명가

아메리칸드림을 어떤 영한사전에서 찾아보니 '민주주의와 물질적 번영을 구현하려는 건국 초부터의 이상'이라고 풀이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은 1776년 7월4일이었다. 곧 2백22주년을 맞게 된다. 1783년에는 영국이 13개주의 독립을 인정했고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은 1789년의 일이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미국 대륙의 인구는 고작 3백만명 정도였다. 그 넓은 땅을 인디언의 습격 등 갖가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개척하자니 프론티어정신같은 왕성한 개척정신 아래 기술개발에 온갖 힘을 기울이는 수밖에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측량기사였고 발명가이기도 했다. 그와 함께 미국 건국의 초석을 놓는데 크게 이바지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피뢰침 발명자라 함은 너무나 유명하다. 독립선언문을 기안했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명문장가, 법률가, 정치가이면서 과학자, 기술자, 발명가에 교육자 등 무려 33가지 재능을 발휘

당년 37살인 김씨는 14살 때인 지난 75년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서 존스홉킨스대학 컴퓨터공학과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다음 3년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메릴랜드대학에서 2년만에 공학박사학위를 따냈다고 한다. 그 뒤 김씨는 7년간 미 해군장교로 근무하면서 최첨단 통신장비를 다뤘고 그 과정에서 관련 통신기술에서의 사업가능성이 큼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40만달러로 유리시스템이라는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고속통신용 '비동기 전송방식(ATM)'을 개발했다. 김씨가 개발한 ATM 방식의 좋은 성능과 큰 잠재성을 평가한 미국의 세계적인 정보통신업체인 루슨트테크놀러지사가



李鍾秀  
(기술평론가/ 본지 편집위원)



▲ 크나큰 기술적 재능, 피와 땀 흘리며 기울인 노력, 그리고 좋은 회사의 경영인을 만난 행운 등으로 아메리칸드림을 실현시킨 재미교포 김종훈씨.

한 천재였다. 그러기에 그들 건국 공로자들은 처음부터 헌법에 특허보호를 위한 규정이 들어가게 하는 등 기술입국의 궤도를 깔기 시작했던 것이다. 발명연표(年表)를 보면 건국 무렵인 1786년에 에반스의 증기 제분기(기계 하나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한다)의 특허를 시작으로 속속 획기적인 발명이 미국인에 의해 이뤄졌음이 기록되고 있다. 앞서 말한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기 3년 전에 농사용 쟁기를 고안했는데 농민들한테 보이콧당했다. 초기의 자동차가 보이콧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문명의 이기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현상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밖에도 얼마든지 기록에서 찾아낼 수 있다.

19세기 후반기에는 벨의 전화기 발명, 이스트만의 사진필름 발명 등이 획기적이었지만 무엇보다 에디슨이라는 발명왕이 나와 기술에 의한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한 대표적인 인물로 손꼽히게 된다. 개척정신을 발휘해서 아메리칸드림을 실현시킨 인물은 정치, 경제, 예술 등 다방면에

걸쳐서 많이 배출됐다. 통나무집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변호사가 된 다음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된 에이브러햄 링컨 역시 아메리칸드림 실현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미국의 공업이 발달되고 산업이 융성하게 되면서 가장 쉽게 일확천금하는 길은 새로운 창안으로 특허를 따내 팔아넘기거나 상품화하여 널리 파는 것이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로 접어들면서부터 미국의 기술, 공업, 산업은 큰 활력을 얻어 획기적인 발전을 보게 됐다. 20세기 초의 라이트형제의 비행기 발명에서 발단된 미국의 항공기산업은 20세기가 끝나가는 오늘날까지 절대우위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해왔다. 포드에 의해 대량생산방식이 확립된 미국의 자동차산업도 기복은 있었지만 세계에서의 절대우위는 흔들림이 없었다. 헨리 포드 역시 아메리칸드림의 실현자로 손꼽을 수 있는 대기술자임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사실이다. 트랜지스터 발명, 컴퓨터의 첫 제조, 원자폭탄 첫 개발 등이 미국에서 이루어진 20세기 전반기에는 기술의 나라, 발명의 나라인 그 나라에서 허버트 클라크 후버라는 광산기술자가 제3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과학자출신과 의사출신의 국가원수, 이공과계 대학출신의 국가원수는 몇몇 볼 수 있지만 대기술자로서 아메리칸드림을 실현시킨 뒤 다시 대통령까지 된 이색적인 성공자는 후버말고는 달리 볼 수가 없다. 건국 당시는 약 4백만에 지나지 않았던 미국의 인구가 해외로부터의 엄청난 이민자들이 들어와 이제 2억3천만명 정도로 불어났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의 머리 속에는 언젠가는 아메리칸드림을 실현하고야 말겠다는 희망과 결의가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 결과 수많은 기술자와 발명가가 꿈의 실현을 보았다. 그로 해서 미국은 공업발전을 통한 경제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 꿈의 성공확률 크지않아

후버대통령은 광산기술자 시절에 부부가 공동으로 금속학의 고전인 「데 레 메탈리카」를 라틴어에서 영역해 내기도 했다. 기술진흥을 위한 미국의 풍토는 그런 작업 등을 통해 더욱 비옥해졌음은 말할 것도 없다. 기술이 자라고 기술자가 대성하고 발명을 통해 발명자가 아메리칸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는 토양은 하루 아침에 조성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오랜기간에 걸쳐 그러한 기술진흥, 발명장려의 토양이 가꾸어진 미국이었지만 모든 기술자가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웠다. 더구나 아메리칸드림을 실현시킬 정도의 큰 성공자가 되는 확률은 그리 크지 않다. 정보사회시대의 영웅인 빌 게이츠 같은 기술자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아메리칸드림 실현자인 것이다. 미국에서조차 벤처기업이 성공해서 생존하는 확률은 10분의 1 정도라는 가혹한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김종훈씨는 스스로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만 그것은 겸손일 것이다. 대단한 재능과 피와 땀을 많이 흘려 기울인 노력, 그리고 루슨트테크놀러지사 같은 좋은 회사의 경영진(귀인)을 만난 행운이 아니었다더라면 아메리칸드림은 실현되지 않았을 것이다. ㉓